

■ 진흥회 동정

중전기 PL 관리사 양성 중급과정 교육 실시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제조물책임(PL)법의 시행(2002. 7. 1)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 중전기 제조업체의 제품 안전성 및 신뢰성 구축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올해 업체에서 분야별로 최소 1명의 PL관리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제1단계 사업으로 지난 4월 11일 【중전기 제조물책임법 대응전략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여 PL시대에 기업의 생존전략, 중전기산업계의 주요 문제점, PL 대응전략 추진계획 등을 주제로 다루었으며, 이어 제2단계 사업으로 업체를 대상으로 6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PL제도의 이해 및 해외사례 등을 중심으로 『중전기 PL관리사 양성교육』 초급과정을 실시하였다. 초급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원은 31개사

57명으로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신청접수를 조기에 마감한 결과로서 당초 계획인원 40명을 훨씬 웃돌아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초급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2일과 13일 동일 장소인 한국전기연구원(경기도 의왕시 소재) 교육장에서 제3단계 사업으로 ▲제품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법론 등 6개 과목을 중심으로 중급과정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PL대응을 위한 PSMP 요구사항 등 5개 과목 등을 주제로 양성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고급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중전기 PL 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일정을 마치게 된다.

(문의 : 기술진흥팀)

아프리카 전기산업 시장개척조사단 성공적 업무수행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10박11일간의 일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이디오피아 등 3개국을 방문, 조사하는 “아프리카 전기산업 시장개척조사단”(단장 : 공창덕 상근부회장)을 파견하여 현재 국내 중전기기업계의 수출이 미미한 아프리카 시장을 대상으로 해외 신규 판로개척 활동을 전개한 결과 우리 업계의 미개척 지역인 아프리카 시장의 개척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시장개척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47개 업체에 870만달러, 케냐에서 45개 업체 940만달러, 이디오피아에서 44개 업체와 810만달러 등 총 136개 현지 업체와 2,620만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시장개척단은 또한 기대이상의 상담실적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한국제품의 우수성과 인지도를 제고한 것은 물론 수출상담 후 대리점 개설 및 현지 제조공장을 견학하고 계약의사가 있는 바이어의 경우 국내에 초청키

로 하고 현지의 상공회의소와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류활성화 및 시장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한 수출상담회로 현지 전력청의 향후 공개입찰에서 국산제품의 입지를 강화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상담장 운영, 상담

업체 알선 등을 위한 현지 한국대사관의 대사 및 직원, KOTRA 직원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큰 밑거름이 되었으며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참가비 지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문의 : 통상전시팀)

제2차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용자사업자 확정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7월 19일 산업기술개발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1년도 제3차 자금 용자대상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개발과제는 ▲진광이앤씨(주) 지중배전선로용 케이블엘보접속재 개발로서 17억9천만원의 지원키로 하였다. 금번 개발사업은 산업자원부의 최종 확정절차를 거쳐 용자금리 연 6.25%, 용자기간 3년거치 5년분

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올해 동자금의 전기분야 지원규모가 60억원으로 진흥회에서는 3차에 걸쳐 용자사업자를 선정하여 배정된 개발자금 전액을 소진하였으며, 하반기 업체의 지원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에 추가 자금을 요청하여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문의 : 기술진흥팀)

